

Family TableTalk

Conversation 04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본문

시편 73

생각하기

지금 이렇게 각자가 자가 격리중인 시간동안에,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악, 고난, 공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 하게 된다. 최근에, 나의 학생중에 한명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와, 거리를 두고 분리된 삶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고통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학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을 이겨낼수 없을 만큼 힘든것이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 다고 하였다. 그의 염려는 나에게 익숙하게 느껴졌고, 나는 시편기자 아삽이 시편 73편에 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아삽은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의문과, 첫 16절에 악과 고통에 대해서 의문하며 씨름하는 혼란스런 모습을 볼수 있다.

그러나, 17절에는 아삽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된것을 알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아삽의 마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질투가 있었는지와, 하나님 자체 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쫓기에 바빴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큰 욕구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삽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이해되고, 악과 고통에 대한 질문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끝내는 정의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더 알게되는 그것이 궁극적인 선 이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은 것이다.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한것 처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며 사는 이 시간은, 이것을 깨닫는 가장좋은 기회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 하고 해답을 찾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공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당신은 지금 이 전염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 주님에 대한 아삽의 씨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속에서, 아삽의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
- 당신은 삶의 이 시간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엿볼수 있는가?

적용

기도

주님,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병으로 인한 이 시간동안에,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보기보다는, 선물자체를 쫓을 때가 많았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이러한 시간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은 기쁨을 찾고, 가족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by Kevin Yi

Kevin Yi is a veteran youth pastor of 16+ years and is a regular contributor to the Rooted Ministry blog and YouTube channel at www.rootedministry.com. He serves at Church Everyday in Northridge, CA.

cpyu.org  CENTER FOR PARENT/YOUTH UNDERSTANDING

© 2020 Center For Parent/Youth Understanding